

2017 년 1 월 22 일 주일 설교 '왜 믿음인가?'(4)

“두려움이 우리를 구원한다”(Fear Saves Us)

누가복음 11:14-23

1.

새해 첫 주일부터 저는 '왜 믿음인가?'라는 제목으로 연속설교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고백에 이르지 못한 분들에게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려는 것이고, 이미 믿음의 고백에 이른 분들에게는 자신이 선 자리를 다시 한 번 돌아 보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 즉 '기쁜 소식'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존재 하신다는 증거 네 가지를 말씀 드렸고, 지난 주에는 하나님이 존재 하신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 초월적인 세상, 그 영원한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그 영원하고 초월적인 세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나라, 그 세상, 그 영원한 차원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차원으로 이끄실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인간이 이런 차원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인간은 왜 이 모양이고, 세상은 왜 이 모양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모습입니까?”

소위 '고등 종교'라고 인정받는 종교들은 모두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답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모든 종교는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종교마다 다르고 해결책도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래 이런 세상, 이런 인생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 장과 2 장에 묘사된 에덴 동산은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막힘 없이 소통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위로 하나님을 모시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며 완전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 깨진 것은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 장에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으며 그 죄의 결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3 장 1 절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완전한 평화와 조화가 깨어지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 장 1 절의 행간을 들여다 보면, 인간보다 먼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뱀입니다. 이 뱀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먼저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인간 세상에도 퍼진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를 성경에서는 '사탄' 혹은 '바알세불'이라고 부릅니다. '악마' 혹은 '마귀'라고도 부릅니다. 사탄의 명령을 받아 일하는 부하들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귀신은 복수고, 악마, 마귀 혹은 사탄은 단수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동화나 전설 혹은 신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끼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악마', '마귀' 혹은 '귀신'이라는 단어들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동화나 전설 이야기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단어들 나오면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탄은 엄연한 실재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귀신이라는 단어가 동화의 기억을 되살려 내기 때문에 저는 '악한 영'이라는 번역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영이 있다면 악한 영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서의 많은 부분을 무시해야 합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지요? 영적 세계에 대해 우리가 맞고 예수님이 틀렸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세계관도 받아 들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탄과 악한 영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전교우 성경일독' 진도를 따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제대로 읽으신 분이시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이 신비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싶은 열망이 솟아 오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뒤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1 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주목하려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발생한 것도 있고, 죄로 인해 생긴 것도 있으며, 환경이나 잘못된 습관 혹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인을 꿰뚫어 보셨고, 원인에 맞는 대응을 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말합니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눅 11:15)

무당이나 점술가들 중에도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달래어' 그 사람을 놓아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귀신을 달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말단 직원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매니저를 불러 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엘세불을 달래서 귀신을 내보낸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당신은 귀신을 ‘달래어’ 내보낸 것이 아니라 싸워서 쫓아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20 절)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등진 이후로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사탄은 세계 모든 나라를 예수님께 보여 주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눅 4:6-7)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는 말은 진실 같은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에게 등진 이후로 이 세상은 잠시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 진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탄은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은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에 권태를 느낀 나머지 못된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은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못된 친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끝내 그 아들을 못된 친구의 영향력으로부터 꺼내 올 것입니다. 다만, 완력으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그 아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며 기도하며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 꼭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권태를 느끼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영적 유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인간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 주심으로 사탄의 영역 아래 사는 한 사람을 구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

귀신 들림의 현상 즉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만이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또한 정신 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의 주요 전략이 아닙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주요 전략은 모든 사람을 진리에

대해 속게 만들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요 8:44)

진짜 사기꾼은 속은 줄 모르게 속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기꾼 중 최고의 사기꾼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혼동합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교란시킵니다. 자신이 보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단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고 헛된 일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사탄에게 속아 사는 인생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양이 높고 인품이 훌륭합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리분별을 해 가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사탄의 은밀한 교란 전술로 인해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혹은 자주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여 낭패를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씩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에 깊이 빠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사탄의 기만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경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번 뿐인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온전한 정신으로 마지막을 맞는 행운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누구에게나 그런 행운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행운아여서 차분히 죽음을 준비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나 온 인생을 돌아보며 어떻게 느낄까요?

만일 ‘내 인생이 의미 없이 허비 되었구나!’ 싶으면 얼마나 낭패스러울까요? 평생 바라고 믿어 온 대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생명의 주인이 계셔서 죽은 후에 그분 앞에 서야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너는 내가 선물로 준 인생으로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제겐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속았을 뿐입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핑계 대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하지 말라는 일을 했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내 살 중의 살아요 뼈 중의 뼈!”라고 고백 했던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같이 살라고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합니다. 말은 맞지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 주셨고, 하와가 먹자고 했으니깐요. 하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아담이 그렇게 행동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먹고 싶은 그의 욕구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말에 속아 주는 척 하면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너는 왜 그랬느냐?”고 물으십니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아담보다는 하와가 덜 비겁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뱀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저의 경험적 관찰에 의하면, 연약한 여성들보다 강한 남성들이 더 비겁한 면이 있습니다. 뱀 때문이라는 하와의 말도 맞지요. 하지만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도 그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무엇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말재간에 넘어갈 분이라면 어찌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을 우리 자신보다 더 깊이, 더 세밀히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더 잘 압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사탄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 보다는 타락한 욕망을 만족 시키며 살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에 속아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것을 핑계삼아 하고 싶은 대로 해 보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속아 주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4.

사탄, 죄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주제입니다. 혹은 들어도 무시하려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 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인류가 아직 미개한 수준에 있을 때 믿었던 것이므로 과학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유치한 주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하나님의 성품에 모순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면, 그런 분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죄인들에게 영원한 고문을 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은 없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은 마침내 텅 비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까지도 끝내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먼저 지옥에 대한 성경의 묘사들이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불 아궁이”(마 13:50) 혹은 “꺼지지 않는 불”(막 9:43)에 비유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옥을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계 21:8)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막 9:48)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표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옥은 구더기들에게 영원히 파먹을 권리가 부여된 구더기의 천국이 됩니다. 이 모든 비유는 지옥의 고통을 전하려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한다면 사탄과 악한 영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받아 들여야 하듯, 지옥에 대한 말씀도 귓등으로 흘려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에서의 심판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에 모순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울고 웃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한 의미에서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진실하십니다. 그런 분이 일생 동안 당신이 주신 귀한 생명을 받아 사탄의 유혹을 빌미로 삼아 자신의 타락한 욕망을 따라 허비한 사람에게 대자대비한 미소로 맞아 주시면서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묵인해야 옳을까요?

2015년 6월 17일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찰스타운에 있는 Emmanuel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백인 청년이 흑인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수요일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교인과 목사 아홉 명을 총으로 쏘 죽였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재판 끝에 범인 딜런 루프(Dylan Roof)가 지난 주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썼다는 글은 참으로 공포스럽습니다.

I would like to make it crystal clear I do not regret what I did. I am not sorry. I have not shed a tear for the innocent people I killed. I have shed a tear of self-pity for myself. I feel pity that I had to do what I did in the first place.

나는 내가 행한 일에 아무런 후회를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정처럼 분명하게 말해 둡니다. 나는 미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죽인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이 불쌍하여 한 방울 눈물을 흘리기는 했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처음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점에서 나 자신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한 후에 심판자 앞에 섰다고 합시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생 했구나. 너도 희생자가 아니더냐? 오죽 했으면 그렇게 살았겠느냐? 이리 와서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옥이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넓으셔!” 하면서 찬양 하시겠습니까? 저같은 사람도 그의 말에 치를 떨고 격분하는데,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심판과 지옥은 존재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빌미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산 사람이 지옥에서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묘사들은 모두 비유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가끔 꿈이나 환상에서 지옥을 보았다며 자세하게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 사람에게 비추어진 영상일뿐입니다.

지옥에 대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고의 행복을 맛볼 때 “이건 천국이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때 맛 보는 그 감정이 최대치가 된 상태 그리고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반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을 때 “아, 지옥이 따로 없네!”라고 말합니다. 그 때 맛보는 그 감정이 최대치가 된 상태 그리고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그렇게 갈릴 수 있다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5.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왜 이렇게 겁을 주시나?”라고 생각할 분이 계시겠죠?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불편한 진실’이지요. 왜 불편합니까? 그 진실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앎으로 생기는 두려움은 좋은 것입니다. 처음 운전을 시작하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만 입맛 따라 먹지 않고 습관 따라 살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만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노력합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포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마비시키고 손과 발에 힘이 빠지게 하여 무력화시키는 것이 공포감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건강한 두려움은 꼭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두려움이 우리를 구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은 우리가 최악의 운명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막아 줍니다. 그 두려움을 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 두려움을 벗어 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도로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곡예 운전을 하는 자동차와 같게 됩니다. 운이 좋으면 진창에 박히는 것이고, 운이 나쁘면 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붙들고 심각하게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지옥의 심판에 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 뿐인 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일을 멈추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남은 인생을 값지게 사용하고 마침내 하나님 품에 이르는 삶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 오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믿는 이들에게 간곡히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벧전 5:8)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중에도 사탄에 대해 ‘공포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사탄과 악한 영에 대해 공포감을 가지는 것은 마치 벌레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두려워 떠는 어른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벌레와 사람이 만나면 누가 떨어야 합니까?
벌레가 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사탄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탄과 악한 영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두려워 합니다. 하지만 벌레에 물리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방심을 했다가는 우리는 제발로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 사탄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금 심판과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단지 마음에 위로나 받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잘 믿어 복 받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에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진실을 알려 주셨고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요, 그래서 구원입니다. 하나님에게 등진 채 그냥 이대로 살아간다면 심판과 지옥에 처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운명에서 건짐을 받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건짐 받지 못했다면 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건짐 받았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답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등진 채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마음 담아 기도하며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저희에게 주신 구원을 지키소서.
저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속회자료> 2017년 1월 22일 주일설교 '왜 믿음인가?'(4)

“두려움이 우리를 구원한다”(Fear Saves Us)

1.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70장(통 79)
2.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3. 누가복음 11장 14-23절을 읽습니다. 귀신에 대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10분)
 4. 한 사람이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 발표합니다. (10분)
 5. 말씀의 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2) 사탄, 심판 그리고 지옥에 대해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경위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점은 무엇입니까?
 - 3) 사탄, 심판 그리고 지옥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까?
 - 4) 그리스도 예수의 영역 안에 늘 머물러 살기 위해 당신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6. 기도
 - 1) 두려워 할 것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 2) 사탄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7.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번 이상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8.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529장(통 319)
 9.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